

# 대인예술야시장, 콘텐츠 채웠더니 '복적복적'

### 광주시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 전국 각지서 1만5천여명 몰려 먹거리부터 예술 체험까지...시장 상인 매출 연계 방안 과제로

"음식 금방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토요일이던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열린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는 광주시 추산 1만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2월 이후 2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달 9일부터 남도달밤야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재오픈했다. 먹거리부터 콘서트, 예술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지난달 시즌 1에 이어 '나이트호러 야시장' 테마로 열린 이번 시즌 2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야시장이 문을 연 오후 5시 대인시장 공영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는 바람에 직원들이 인근 주차장 지도를 나눠주고 있었다. 주 공연장에서는 방문객과 '가위바위보', '눈치게임' 등 게임을 통해 음료수·주류 등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열려 사람들이 몰렸다. 시장 한편에는 광주시에서 자체 모집한 푸드트럭 8대와 먹거리 판매 부스 15곳이 자리 잡아 큐브 스테이크와 닭강정, 떡갈비, 볶음밥 등 음식을 쉴 새 없이 요리하고 있었다. 이곳 매대마다 20~30여명 줄이 늘어서 있었다.

곳곳에 자리잡은 '즐거거리'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스마트 관광콘텐츠인 '메타버스·증강현실(AR) 활 쓰기 체험'이나 '쿠키 만들기', '핸드 페인팅 체험', '도에 체험' 등 부스들도 쉴 새 없이 방문객을 맞고 있었다. 시장 곳곳의 갤러리에

서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판매되고 있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일일 요리 교실 체험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 공연장과 제2공연장을 나누어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주 공연장에서는 합창 공연과 디제이가 펼쳐지는 동시에 제2공연장에선 '통기타존'의 힐링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 원하는 공연을 찾아다니는 즐거움도 있었다.

방문객 전술희(여·27·서구 풍암동)씨는 "보통 '야시장'이라고 하면 푸드트럭 몇 대 설치한 게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남도달밤야시장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두 배로 즐거웠다"고 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한 축제로 지난 2011년부터 문을 열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장 내 빈 점포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광주비엔날레 '복적복 프로젝트'가 계기가 된 만큼 '시장'과 '예술'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야시장은 전통시장보다 마트가 익숙한 20~40대의 발길을 끌며 SNS를 통해 야시장을 알게 돼 서울, 대구 등 타지에서 온 20~40대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온 대학생 정하민씨는 "개장을 앞두고 놀러 갈 곳을 찾던 중 광주 야시장이 잘 꾸며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며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만족스럽다. 낯고 칙칙한 전통시장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가 열린 27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에 대한 편견과 완전히 달라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상인들은 축제의 흥행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래서인지 이날 밤 10시까지 이어진 야시장에선 대인시장 점포 300곳 가운데 문을 연 곳은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코로나 2년 동안 점포 50개 이상이 문을 닫은 것도 이유가 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축제인만큼 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 상인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장 상인들이 변화해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되고, 상인들 매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문병남 대인시장상인회장은 "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반짝 매출이 오르기 하지만, 상인들의 전체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아예 야시장 때 문을 열지 않는 상인들도 많다"며 "시장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받

아들여 시장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 서비스도 상품 구성에도 변화를 줘서 평소에도 많은 손님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도예술야시장 시즌 2는 다음달 3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시즌3는 추석·다문화·할로윈 등을 테마로 오는 9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릴 계획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0만원 받으려고... '배고픈' 광주 예술인

###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준 접수에 광주문화재단 서버 다운 코로나 이후 예술소득 '반토막'...연소득 1430만원 그쳐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을 타기 위해 신청일 지정부터 수백명이 몰려 재단 서버가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사이 더욱 힘들어진 광주 예술인들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재단은 지난 24일 새벽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했다. 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순 400명에게 작품비 지원 형식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200~300명의 신청자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 서버 폭주에 대비해 서버 수용량을 미리 100명으로 늘렸으나 그보다 2~3배 많은 사람이 몰려들며 서버가 다운됐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신청자는 31일까지 모집하며 28일 현재 닷새 만에 3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가 오류를 일으켜 약 25분간 60여명 예술인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모집했는데 서버 오류로 게시물 보안이 풀리면서 신청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2021 광주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예술인 활동가는 2111명이다. 이들 중 전업 예술인은 61.4%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1280명 안팎이 재단이 진행 중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청순 선정'이 적정 한계를 두고도 불응표를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또한 신청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흑시모

를 심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예술가에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를 보면, 광주 예술인들의 예술 소득은 코로나 이후 '반토막'이 났다. 코로나 이전 예술 소득은 평균 766만원이었으나, 코로나가 퍼진 2년 사이 451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소득을 포함한 연평균 개인소득은 코로나 이전 1894만원에서 이후 143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연, 전시 등 소득을 올릴 기회가 줄면서 예술인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지원 사업에 목을 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 예술인들은 창작·연습·실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역 예술 정책(지원사업)'이 부족하다(54.2%)는 점을 꼽았다.

광주 한 예술인은 "최근 대면 공연·전시 등이 사라져 트러블이 있지만 코로나 재유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섬뜩하다"며 "적은 돈이나마 지원 사업들을 찾아다니는 게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 전어 수만 마리 폐죽음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에 28일 전어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떠돌아 목포시가 조사에 나섰다.

이른 아침 평화광장을 산책하던 시민들로부터 이날 새벽부터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내 용의 신고가 목포시, 해경, 해양환경청 등에 접수됐다.

목포시·목포해경·해양환경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동원돼 오전 6부터 수거 작업에 나서 오후 4시 쯤 마무리됐다. 이날 폐사한 물고기는 4~5cm 크기

의 전어 새끼가 대부분으로 6t가량 수거됐다.

목포시는 폐사한 전어와 채취한 바닷물을 국립수 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처음이다"며 "폐사 원인은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이나 영양 결핍, 산소 부족 가능성 등이 추정되나 분석 결과가 나와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31일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능해 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는 31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456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48만9370명으로, 그중 재학생이 39만7119명이고 졸업생 등(검정고시 출신 포함) 수험생은 9만2251명이다.

졸업생 등이 전체 응시자 중 비중은 18.9%로 2022학년도(21.1%)보다 낮아졌지만, 2021학년도(16%), 2020학년도(16.4%)보다는 높아졌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비율이 16.1%로 6월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다.

6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도 오프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